

◎ 99년 봄농활 여성농민 교양자료

▷▷ 여성 농민은?

1. 여성 농민은 누구인가

-여성 농민은 전체 농민의 51.7%에 달하며 농민의 아내이다. 농민의 아내이지만 더 이상 가정주부는 아니다. 가사노동이나 농한기 부업은 그야말로 부업이고 농업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촌 부녀자나 여성이라는 모호한 말 대신 여성 농민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농업 생산 주체로서의 여성 농민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 농민은 한 마디로 여성 문제와 농민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람이다.

2. 여성 농민의 현실과 지위

(1)일이 많다.

㉠ 농업 노동

-여성 농민의 농업 노동의 참여 형태는 자가 노동과 품앗이 그리고 고용 노동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여성 농민의 농업 노동 참여는 남자들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농업의 재편이 전통적인 미작 중심 농업에서 과수, 원예, 특작 등 상업화 추세로 변화하면서 여성 농민들의 노동량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농업 노동에 있어서 논농사의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 비율이 남성이 높고, 밭농사의 경우에는 여성 농민이 70%정도의 노동을 투입하고 있다. 논농사의 경우 남성의 노동 비율이 높은 이유는 논농사의 기계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기술 수준이 높은 생산 수단을 이용한 노동은 남성들이 주로 하고 단순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노동만이 여성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노동력은 보조적인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 농민이 농업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여성 농민이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서 주체적 자각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가사노동

-가사노동이란 임신, 육아, 식사, 청소 등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노동을 통틀어 말한다. 가사노동의 경우 도시나 농촌이나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더군다나 봉건적 잔재가 뿌리깊게 남아 있는 농촌의 경우 이것은 거의 여성들의 몫이다. 농촌의 경우 주거 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은 도시 여성에 비해서 훨씬 가중된 형태로 나타난다. 농촌의 특징이 생활의 장과 노동의 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노동이 개개 가정에서의 개별적 노동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사노동 분이 농업 노동에 할애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농가 내에서 농업 재생산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이 위축과 함께 여성 자신이 건강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생활의 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 여성 농민의 농외소득 활동

-악화 일로로 치닫는 농가 경제와 부원적 기계화로 인한 노동시간의 단축 등은 여성 농민들을 고용 노동이나 농업 이외의 노동으로 유인하고 있다. 여성 농민들은 이제 종가 경제의 유지를 위해 농민, 노동자, 상인 등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여성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외소득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시장에서 농산물의 판매를 통해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가내 부업이나 마을 내 부업(간단한 농산물 가공-메주와 호박 1차 가공, 장아찌 만들기 등등)의 형태이다. 그러나 아직은 운영 규모도 매우 작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판매나 유통 등에 여성 농민이 깊숙이 개입해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로 공장에 취업하거나 잠시 도시로 이농하는 형태이다. 이들 여성 농민들은 대부분이 저임금에 불완전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농민들은 저 농산물의 부등가교환으로 인한 노동력 수탈과 저임금, 불완전 고용으로 인한 노동력 수탈에 무방비하게 내던져 있는 셈이다.

(2) 여성 농민의 건강은 최악의 상태

-강도가 센 농사일, 농약 중독, 농업 재해, 산전 산후 조리 못함, 영양 부족, 남편으로부터 매맞음... 여성 농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많다. 하지만 농촌의 의료 시설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곳이 태반이고 낮은 질의 의료 행위로 거의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보건 진료소를 찾아가는 일, 병원이라도 갈려면 하루에 몇 번 있는 차시각에 맞춰 읍내까지 나가야 하며 하루해를 꼬박 잡아야 하니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불편하기 그지없다.

또한 의료보험 제도는 이중, 삼중으로 농민을 수탈하는 세금이 되어버렸다. 현재 공무원, 교원, 직장의보,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의보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합간 재정 상태를 보면 공무원, 교원의보와 직장의보에서는 적립금이 3조원에 달하지만 지역 조합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농촌의 경우는 재정 적자 조합이 허다하다.

(3) 여성 농민의 권리 행사 기회 차단

-여성 농민들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적으로 베풀기만을 강요해왔다. 여성 농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하는 것은 암탉이 우는 것이요, 집안이 망할 징조라 하였다. 집안의 작은 일, 큰일 그리고 마을일로부터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는 차단되어있다. 여성 농민은 노동할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강한 어머니이다.

(4) 가부장제 문화로부터의 고통

-농촌 사회는 도시에 비해 봉건 의식의 뿌리가 광범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여성 농민의 지위는 남편의 지위나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00각시, 00마누라 등이다.

현재 발표된 농업정책 등을 보면 어디를 보아도 실질적으로 여성 농민을 위한, 여성 농민을 농민으로 인정하고 여성 농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없다.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농민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은 있으나 여성농민회를 제외하고는 여성 농민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해결하려는 조직은 없다. 여성 농민의 문제는 개인 문제, 집안 문제 극복 수준으로 협소하게 다뤄질 것이 아니라 농촌 사회 내의 전반적인 봉건성 극복과 민주적 생활 풍토 조성, 올바른 공동체 정신을 세워 나아가는 측면에서 사회적 과제로 풀어야 할 것이다.

3. 여성 농민반의 지위와 역할

(1) 부녀반이 아니라 왜 여성농민반인가요?

-여성 농민은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으로서 더 이상 농가 주부가 아닌 농업 생산 노동의 주체이다. 하지만 수입 개방과 저 농산물 가격정책으로 많미암아 자신의 노동 가치를 실

현하지 못하고 노동력만 수탈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급적 처지에서 여성 농민은 실제로 모순 해결의 주체로서 집단적 조직적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성 농민의 계급성과 자주적 진출에 주목하면서 여성농민들과 학생들이 만나는 여성농민반 활동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녀반이 아닌 여성농민반이라 정의하는 것이다.

(2)그건 그렇고 여성농민반이 중요하긴 한거예요?

-농활기간중 가장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여성 농민이다. 여성농민들은 대개가 학생들의 활동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어머니의 품성으로 대해 주신다. 농활 기간중 열리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에 여성농민반 준비를 세심하게 준비해 가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3)근데 여성 농민을 직접 만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랑 다른데요?

-현상적인 모습에 좌절하지 말자! 여성농민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4-50대 이상의 나이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분들은 4-50년의 세월을 힘든 농사일과 집안일, 어려운 살림에 찌들어 오셨고 자신을 억압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 운명이라며 체념하고 길들여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 농민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의해 강요된 모습일 뿐이다. 우리의 할 일은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여성 농민들의 현실을 주의 깊게 이해하고, 목적 의식적 노력을 통해 문제 인식과 해결의 계기를 찾도록 힘쓰는 것이다.

여성농민반이 왜 무슨 일을 하고자 꾸려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전에는 부녀반이라고 지칭되고 활동의 내용도 그저 아주머니들과 잘 놀다 오면 되겠지하는 생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여농반 주체를 세울 때 아주머니들과 잘놀수 있는 사람 중심이었다. 하지만 여성농민반은 농민, 여성이라는 현실에 기인하여 여성 농민의 자주적인 대중 조직의 건설과 강화에 복무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단위이다. 여성농민의 건강한 생활 자세를 배우고 여성농민의 현실을 느끼는 것을 기본으로 여성 농민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여성농민분들이 모일수 있는 초보적인 계기부터라도 마련해보자.

덧붙이면 여성 농민들은 마을의 여론 형성 주체이다. 그러하기에 그 마을의 농활을 평가받는 내용의 대부분은 여성농민반 분반 활동을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임했는지,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가 그 관건이다. 그래서 여성농민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농민 문제의 본질

(1)외세와 자본은 WTO하 농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저임금구조 유지의기반이 되는 저농산물 가격 정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려 한다.

(2)일관된 농업 희생정책으로 농촌 탈농, 이농이 증가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가 경제의 약화는 결국 여성 농민까지 과중한 농업 노동으로 끌어들이고, 여성 농민들의 과중

한 노동에 있어 우리나라의 어려운 농가경제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즉 자본은 여성 농민이 농업 전반의 생산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농에 맞는 생산 조건과 수단, 인력 개발비용, 모성 보호 비용, 복지 비용, 사회참여확대 등 생산 주체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여성노동을 보조 노동수준으로 격하시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4)자본은 노동력재생산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여성 농민을 여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 가족을 위한 사랑 봉사, 여성의 본분이라는 가부장적 봉건 의식 유지를 통해재생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챙긴다.

(5)생산 판매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은 가부장적 성차별 의식을 이용하여 자본과 여성 농민과의 관계를 호도하고 조직화를 어렵게 만들고 부부간의 갈등을 만듦으로써 전 농민의 불만을 획석화시킨다.

▷▷여성 농민 운동의 방향

여성 농민 운동의 궁극적 방향은 여성 농민 억압 구조를 깨뜨려 가면서 반외세, 반독점의 사회 운동에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올바른 농업 발전, 민주 사회 발전을 향한 여농다중의 생산 주체화를 실현해 내는 것, 생산 주체화를 위한 토대로서 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복지 향상, 사회 참여 확대를 실현해 내는 것이다.

▶▶봄농활의 중요성 및 활동방향

우리학교가 들어가는 고령군은 여성농민회가 아직 건설되지 않았으며 마을 행사가 있으면 음식을 만들거나 텃치닥거리를 해주는 등 부녀회 형식으로 있는데, 이에 부녀회를 좀더 상승시켜내어 여성농민회를 건설하려면 봄농활이 매우 중요하다.

봄농활은 여성농민반 건설을 위한 또한 여름농활의 분반활동을 대비하여 기초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하므로 가장 먼저 각 마을의 주체는 마을의 중심적인 여성농민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농활대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여성농민 위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마을 주체는 그 마을의 여성농민분들의 여론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농민의 명단까지 파악해 오도록 해야 한다.

자주여성의 당찬 발걸음

제 16대 총여학생회